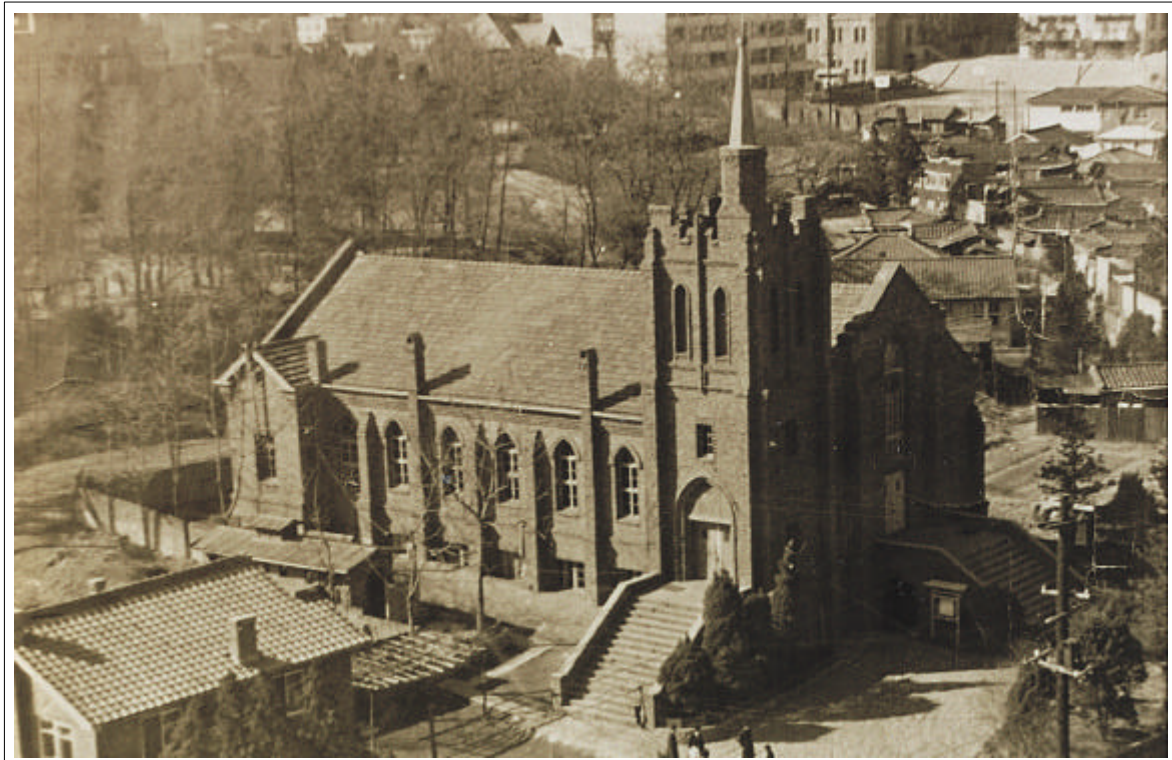


제 4 편 수 난 기  
전필순 목사 시대 (1941~1961)





# 전필순 목사

## 일제말엽 교계 명예메고 고투 총회장 지낸 제3대 원로목사



전필순 목사는 연동교회에 1919년 조사로, 1926년 전도사로, 그리고 1941년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1897년 4월 7일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석천리에서 5대 독자로 태어난(사진 : 상-생가) 전필순 목사는 1914년 순회 선교사인 도서원 목사로부터 장평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1926년 일본 고오베신학교를 졸업하고 1927-1931년 묘동교회, 1935-1941년 수송교회를 거치면서 목회경험을 쌓았다. 그동안 노회장 세 차례, 부총회장 네 차례를 맡은 뒤 1957년 총회장으로 피선됐다. 그밖에 기독교보사 이사장·사장의 많은 교계 주요직 및 서울여자대학 초대 이사장 등 교육계 이사장을 두루 역임했다. 1950년 8월 북한 공산군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으나 탈옥에

성공하고 1954년 다섯번째 교회당을 봉헌하는데 헌신했다. 전필순 목사의 설교는 교리적이고 이지적인 것이 특징인데 설교문은 보통 폐지인 청첩장 뒷면에 요점만 적었다. 1961년 6월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1977년 2월 14일 별세해 연동동산에 안장됐다. 슬하에 재미 중인 1남과 손자손녀(사진 : 중)를 두었다.



전필순 목사 위임식(겸 함태영 원로목사 추대) 기념 - 1941